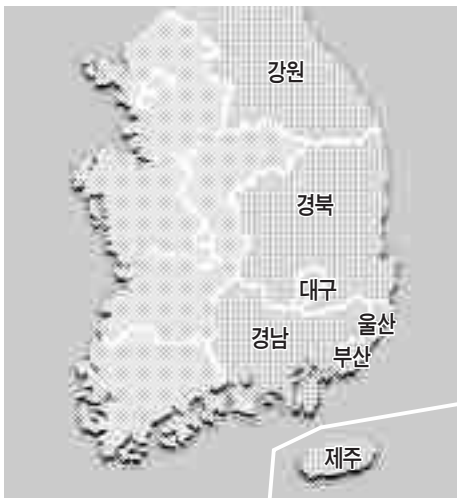


[ 기획 ]

총선 D-8

지방신문협 공동 전국 판세 분석(下)



부산·울산·경남

부산은 '한나라당 1당 독주'가 여전한 기본축이긴 하지만 18개 선거구중 4곳에서 '한나라당 대 친박(朴)' 구도가 만들어져 있고, 일부에서 제3 영역인 '비(非)한나라당 진영'이 도전하는 3각구도라 할 수 있다.

최대 관심지역은 '친 무소속 연대' 결성을 주도했던 3선의원 김부성 후보와 한나라당 정태운 후보가 격돌하고 있는 부산 남구를. 각종 여론조사에선 김 후보가 정 후보를 20%포인트 안팎의 차이로 앞서고 있다. 하지만 '당 브랜드'를 내세운 정 후보의 추적이 만만찮다.

친박 후보들끼리 맞붙은 부산 사하갑도 열전이다. 지난해 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박 전 대표의 수행단장을 지낸 한나라당 현기환 후보와 부산시 선대위원장을 지낸 친박연대 엄호성 후보가 지지율 차이 1~3%포인트 범위 내에서 박빙의 접전을 벌이고 있다. 부산 서구는 역시 친박 현역 의원의 유기준(무소속) 후보와 한나라당 조양환 후보(전 부산시의회 부

아·무소속 '거대 여당 견제' 3~4석 기대

의장)가, 금정구도 현역인 한나라당 박승환 후보와 이 선거구에서 5선 했던 고(故) 김진재 전 의원의 아들인 김세연(무소속) 후보가 서로 앞치닥기처럼 하고 있다.

유일하게 '한나라당 대 민주당'의 구도가 잡힌 부산 사하을도 눈여겨 볼 지역. 재선을 노리는 통합민주당 후보와 맞대결을 펼치고 있고,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무소속 김중환(달서갑) 후보도 진보 성향의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한나라당 대 비한나라당의 대결구도도 전개되고 있는 울산 지역도 한나라당이 자체 분석을 통해 6석 전부를 석권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들과 무소속들은 거대 여당에 대한 견제시리가 살아나면 1~2석정도는 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지역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울주군에선 울산 지역 현역 의원중 유일하게 공천에서 탈락한 강길부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서 한나라당 공천자인 이재익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다.

노동운동의 메카로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원과 구청장까지 배출한 바 있는 울산 북구는 한나라당 운동원 의원의 아성으로 남아 있지만, 민주당과 진보신당이 이영희 전 민노총 정치위원장으로 후보 단일화를 이룬데다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한 최운주 후보가 친박연대의 공천을 받아 출사표를 던져 '분열된 보수'와 '단일화된 진보'의 대결구도도 선거가 전개되고 있다.

정몽준 의원이 내리 4선 한 뒤 서울로 차출돼 잠시 혼란스러웠던 울산 동구 선거구는 안희태 지구당 사무장이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차 한계를 벗어나 앞서 가고 있다. 경남의 경우 한나라당 공천에서 낙선한 통일·고성의 김명주, 진주갑의 최구식 의원이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한나라당 대 무소속의 구도가 형성 됐다.

박희태의원이 물갈이된 남해하동도 하동출신 여상규 후보가 전략공천되면서 남해출신으로 행사부 장관을 지낸 김두관 후보(무소속)와 소지역대결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의원이 지키고 있는 창원에는 한나라당 강기운 전 도의원이 도전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인 김해에는 한나라당 송은복 전 김해시장과 통합민주당 최철국 의원이 치열한 싸움을 벌이면서 노십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산일보·경남신문>

대구·경북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자신의 지역구에 내려온 뒤 대구의 총선 판도는 요동치고 있다. 한나라당은 공천 파동 이전까지만 해도 강세를 유지했지만 공천파동 → 낙선자들의 탈당 → 낙선자 무소속 출마 → 박근혜 전 대표의 공천 비판 및 친박 의원 간접 지지 발언 등을 거치면서 '친박연대'나 친박 무소속 의원들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강제성 한나라당 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한 서구는 '친박연대' 홍사덕 후보와 한나라당 이종현 후보의 초접전 형국이다. 달성갑도 한나라당 홍지만 후보를 '친박연대' 박종근 후보가 바짝 따라 붙고 있다.

친박 후보들의 지역구는 주로 박 전 대표의 지역구인 달성군과 인접해 있다. 달성갑과 을 지역구 친박 후보들은 이같은 지리적 이점을 활용 박 전 대표의 유세장을 찾아가는 등 사실상 공동유세 효과를

차 업은 무소속 약진... 한나라 석권 장담 못해

보고 있다.

참여정부에 몰락했던 후보들의 선전여부도 관심사다. 무소속 유시민 후보가 수상에서 한나라당 주호영 후보와 맞대결을 펼치고 있고,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무소속 김중환(달서갑) 후보도 진보 성향의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15개 선거구가 있는 경북도 '박근혜 바람'이 일고 무소속 후보들의 약진이 두드러지면서 한나라당의 석권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한나라당의 '뒷발'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역대 선거에서 경북은 무소속 바람이 대구보다 강하게 불렀다. 면적이 넓은 데다가 도시와 농촌이 혼재한

지역적 특성이 있어 '바람'보다는 조직 선거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또 입소문이 빠른 농촌 지역의 특성상 인물론도 잘 먹혀들곤 한다.

특히 이번 총선은 대선후보 경선에서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를 지지했던 인사들이 대거 무소속으로 출마, 이들의 선전 여부가 최대관심사로 떠올랐다. '친박' 무소속 후보들은 지역적으로 경북의 서부와 북부에 몰려 있다. 구미(김태환)와 고령·성주·칠곡(이인기), 군위·의성·청송(정해걸), 김천(박팔용), 영주(권영창) 등이 대표적인 지역이다. 박 전 대표의 지역구인 달성군과 인접해있어 박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이들 지역에서 후보자들은

박풍이 강하게 불어준다면 한나라당 후보와 대등한 접전을 벌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경북 동부에서는 한나라당 후보들의 우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에서 가까운 곳들로 포항과 경주 영천 영양·영덕·봉화·울진 등지가 대표적이다. 고향 출신인 이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 이 대통령의 지원을 얻어 지역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한나라당 후보가 아무래도 지역 발전에 유리하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한나라당 후보의 선전이 기대되는 지역이다. <매일신문>

강원

강원일보사를 포함한 강원도내 5개 언론사가 공동으로 조사한 총선 여론조사결과, 선거 초반 8개 선거구 중 참여정부의 실세였던 민주당 이광재 국회의원의 선거구인 태백·영월·평창·정선 선거구를 제외한 7개 선거구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이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동해·삼척, 속초·고성·양양, 홍천·횡성, 철원·화천·양구·인제 등의 경우 1.2위 간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에 있어 혼전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 압도 속 친노 이광재 유일 선전

동해·삼척 선거구는 여가자 성추행 사건으로 정치적 타격을 입은 최영희 국회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 정치신인인 한나라당 정인영 후보와 접전을 펼치고 있다. 속초·고성·양양은 공천과정에서 현역 국회의원을 제친 한나라당 조동용 후보와 무소속 송훈석 후보 간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이동

기 후보가 추격전에 나선 양상이다.

8개 선거구 중 최대 격전지는 홍천·횡성이다. 지난 16대 이후 민주당 조일현 후보와 한나라당 황영철 후보 간 세 번째 대결이다. 여론조사 결과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1.8%로 초박빙 접전을 벌이고 있다. 철원·화천·양구·인제 선거구 한나라당 박세환 후

보와 민주당 이용삼 후보도 세 번째 대결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 펼쳐지고 있다.

강원도는 여당인 한나라당의 당 간판을 내건 후보자는 당 프리미엄이라는 순풍을 안고 순항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 후보자는 담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야하는 이중고를 치르고 있다. <강원일보>

제주

제주 '초접전' 양상으로 흐르면서 박빙의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제주시읍과 서귀포시 선거구의 경우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간 양강 구도로 짜인 반면 제주시갑 선거구는 무소속까지 가세한 '3강' 박매치가 벌어지면서 최고의 격전지로 부각되고 있다.

제주시갑에서는 재선에 도전하는 통합민주당 강창일(56)의원과 한나라당 김동운(52), 무소속 현경

대(69·5선)후보가 오차범위 내의 접전을 벌이고 있어 예측 불허 양상이다.

제주시읍은 통합민주당 김우남(52)의원의 '연륜'과 한나라당 부상일(36·제주대 교수)후보의 '패기'가 격돌하는 양강구도다. 자유선진당 강창재(50·변

호사), 민주노동당 김효상(44) 후보 등이 뛰고 있다.

서귀포시에서도 통합민주당 김재운(42)의원과의 한나라당 강상주(53·전 서귀포 시장)가 맞붙었다. 각종 여론조사 추이는 강 후보가 김 의원을 앞서

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으나 그 격차가 갈수록 줄고 있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현재자(여·45)의원, 자유선진당 오영삼(45) 후보 등이 추격하고 있다. <제주일보>

민주-한나라-무소속 '초접전' 박빙 승부

광주일보 先州日報 광고접수안내

상속한정승인공고

상속한정승인공고

2008년 3월 31일까지 국비지원 훈련생 모집

Table with 2 columns: 과 정 (전자정보Technician, Office automation) and 훈 령 내 용 (컴퓨터초 및 활용, 정보통신망 및 전자회로 실습 등)

7급 공무원 완전 대비

진급입찰공고

주유소매매

SONY의 모든것

현대직업전문학교

무등고시회원

생활안내 광고